



보도자료

2020. 5. 29.(금) 배포



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「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」 마련·시행

- ◆ 기존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
- ◆ 낡은 전기·피난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취약학교 소방시설 강화
- ◆ 학교공사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
- ◆ 전문가의 화재예방 컨설팅 제공,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,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「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.

<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 >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3년 평균	비 고
화재 건수	197건	205건	173건	191건	소방청(2019)

- 아울러,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,
 -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「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

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「교육시설법」*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‘화재안전 시설 기준’과 ‘유지·관리 지침’ 마련 후 고시(~2020.12.)할 예정이다.

*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2019년 제정)

- ‘스프링클러 설치 기준’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(188개교)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.

-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*를 마련한다.

*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상품 개발(~2020. 12.)후 가입안내 추진

- 또한,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,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.

-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 단축(2030년 → 2025년)하고,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(2031년 → 2025년)하여 교체한다.

-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·피난 시설,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,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,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.

- 학교 화재 예방·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,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

-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‘화재감시자’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,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‘사전 승인제’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*해 나간다.

* 건설협회 등 건설관계 기관과 연석회의 및 공사장 화재예방 교육자료 제작·배포

- 화재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*하여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‘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(교육시설재난공제회)’을 구성·운영한다.

* 학교 시설관리 시스템인 ‘에듀빌’과 ‘코러스’에 화재이력 관리 추가

-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,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.

※ (교육부) 위험 마감재 우선 교체, (소방서) 찾아가는 산불대응 교육

-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,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.

-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·관리하고,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.

- ‘국민안전의 날’(4.16.)에는 특수학교 또는 유·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, 화재예방교육,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.

- 아울러, ‘화재예방 공로’가 있는 대학, 학교, 교직원,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하여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“「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」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(요약)



붙임

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(요약)

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(요약)

2020. 5.

교육부

I. 추진배경

- 최근 3년간 학교화재는 매년 20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

<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 >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3년 평균
화재건수(소방청)	197건	205건	173건	191건
복구비용(공제회)	71억 원	44억 원	74억 원	63억 원

- 화재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설분야 맞춤형 종합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(4대 분야 총 12개 과제)

II. 학교 화재 현황분석

- (원인별) 화재원인의 55%가 전기·기계설비 등 시설적인 요인
 - 전기시설(241건, 41.9%) > 불장난·담뱃불(156건, 27.1%) > 기계시설(75건, 13%)
- (장소별) 보통교실(38억 원 23.8%) > 급식소(35억 원 22.1%) > 특별교실(29억 원 18.3%) > 공사장(19억 원 11.8%)에서 발생

III. 그간 화재안전 대책의 한계

- (화재안전기준 변화) 소방법 개정과 화재안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 학교 화재안전 기준의 정비 필요
 - '교육시설법' 제정('19.12.)에 따라 세부 화재안전 시설기준 마련 중
 - 최근 개정된 안전기준* 미준수로 피해는 커지고 복구기간도 장기화
- * 학교 공사장 '화재감시자' 배치 의무화('19.12.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)

※ ('20.3) 시흥 소래중 10억 원, ('19.12) 안동 강남초 15억 원, ('19.3) 진영 대창초 15억 원

- (노후된 시설) 학교 화재 원인의 55%가 노후된 전기·기계시설이며,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화 추세
- (예방·관리 미흡) 학교화재에 대한 이력관리, 화재 전문가 지원 등이 미흡하고 학교현장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존재

IV. 비전 및 추진방향

비전

‘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’ 실현

목표

◆ 시설 요인으로 인한 학교화재 및 인적 물적피해 “최소화”

추진
방
향

안정적 예산
확보를 통한
화재 취약
시설 개선

① 화재안전
제도마련

- ▶ 화재안전 시설기준 마련
- ▶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
- ▶ 공사손해보험 가입 활성화

② 취약시설
개선

- ▶ 인화성 마감재 교체 조기완료
- ▶ 전기, 소방·피난 시설 개선
- ▶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추진동력 마련

화재 안전
문화 정착을
위한
교육 강화,
캠페인

③ 예방·관리
내실화

- ▶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선제적 관리
- ▶ 화재 이력관리 및 전담 컨설팅 제공
- ▶ 관계기관 협업 통한 대응역량 강화

④ 화재안전
문화확산

- ▶ 예방 교육 및 대피훈련 강화
- ▶ 찾아가는 화재 안전 캠페인 개최
- ▶ 학교 화재안전 유공자 포상 신설

V.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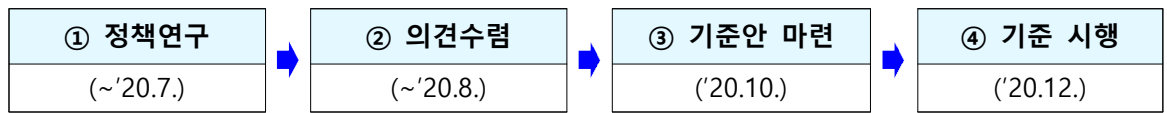
1 시설분야 화재안전 제도 기반 마련

① 화재안전 시설기준 마련

- 교육시설법*의 「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」에 최소한의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·관리 지침을 마련 후 고시

*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'19. 제정)

< 추진 일정(안) >



②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

- 학교 진입로 협소 등의 사유로 소방차 진입 불가능한 학교와 모든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범위 기준 강화

구분	법적 기준	강화 방안
일반 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층 이상 모든 층 1천m² 이상 중 지하·무창층, 4층 이상 층 5,000m² 이상 기숙사 600m² 이상 유치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법적기준 준수 (강화)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11개교 교사동 모든 교실 (강화) 모든 특수학교 177개교 교사동
특수 학교	(상동)	

③ 공사 손해보험 가입 활성화

현 행	추진 방안
<p><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등 	<p>< 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적 의무 가입대상 외 위험성 높은 소규모 학내공사도 보험가입을 유도 ※ 보험상품 개발·홍보(재난공제회, 12월) ⇒ 학교 내 공사 업체 대상 가입 권고

① 인화성 마감재 교체 조기완료

- (드라이비트) 총 6,929동(22,459억 원) 중 '20년까지 유치원·특수학교·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하고 '25년까지 최종 완료(☞5년 단축)

현 행	추진 방안
< 2030년까지 완료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['20년] 유치원·특수학교·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(1,070억 원) ▪ ['21~'30년] 매년 2,139억 원 투자 	< 2025년까지 완료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['21~'25년] 매년 4,278억 원씩 총 2조1천390억 원을 투자해 당초보다 5년 단축

- (샌드위치패널) 총 2,107개소(2,241억 원)에 대해 연도별 해소 추진하고 당초 '31년 완료 목표를 '25년까지 최종 완료(☞6년 단축)

현 행	추진 방안
< 2031년까지 완료 > 총 2,107개소(2,241억 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['17~'19년] 1,070개소(51%) ▪ ['20년] 312개소(66%) ▪ ['21~'31년] 711개소(100%) 	< 2025년까지 완료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['21~'25년] 잔여 711개소(100%) ※ 매년 84억씩 418억을 투자하여 당초보다 6년 단축

② 전기·소방, 피난 시설 개선

- (전기시설 개선) 20년 이상 노후 수·변전, 분전반 등 전수조사 후 '25년까지 유·초·중·고 대상 총 4,260억 원(매년 850억 원) 투자·보수하고 피뢰설비는 '25년까지 초·중·고 대상 총 1,034억 원(매년 200억 원) 투자
- (방화셔터·방화문 보수) 신축 시 방화셔터와 별도의 탈출용 출입구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낡은 방화문 등은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
 - ※ '25년까지 유·초·중·고(16,347개교) 총 817억(연평균 270억 원) 투자·보수
- (안전용품 비치)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안전용품*을 비치

* 화재 피난 시 연기흡입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습식마스크, 안전비닐 등을 유치원, 특수학교, 초·중등기숙사 우선 비치('22까지, 383억 원) 후 전체학교 확대

③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추진동력 마련

- (유·초·중등) 보통교부금(교육환경개선사업) 내에 '화재안전 개선 사업'을 신설·통합 편성하여 연차별 지속가능토록 추진
 - 2021년부터 5년간 총 29,234억 원(매년 5,846억 원) 반영 추진
- (대학) 안전인프라 공모사업*의 시설안전분야에 화재안전사업을 포함하여 총 300억 원을 5년간 편성 추진(매년 60억 원)
 - * 대학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방식 사업[생활, 교통, 시설안전 등]

3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내실화

①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

- (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)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지정 관련법이 개정*됨에 따라 지도·감독 강화
 - * (현행)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건설공사 등 대규모 현장만 배치
⇒ (개정) 화재취약공정(용접, 용단 등) 전체로 확대 <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('19.12.26.) >
- (용접작업 사전 승인제) 화재 취약 공정(용접·용단) 작업 전에 작업 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·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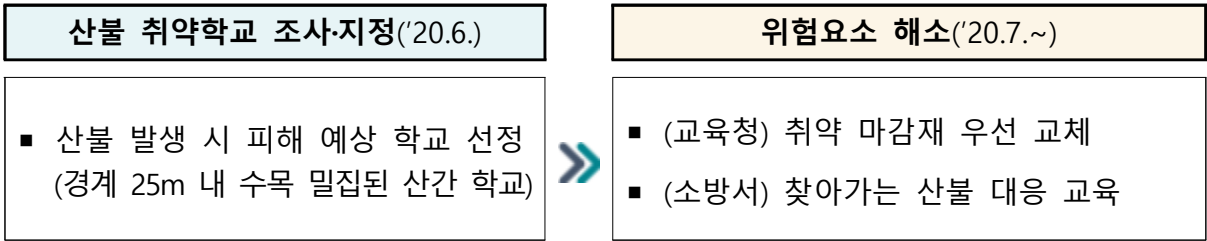
② 화재 이력관리 및 화재예방 전담 컨설팅 제공

- (화재 이력관리) 교육시설 화재발생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화재예방 대책자료로 활용
- (전문 컨설팅)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관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 컨설팅단을 구성·운영하여 화재예방과 대응 컨설팅 제공
 - ※ 화재, 재난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, 현장조사-기술검토-대책 등(한국소방안전원 협력)

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

- (예방관리 협력) 소방서 등과 학교정보*를 사전 공유하고, 건설관계 기관이 학교공사 건설업체 대상으로 안내·교육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
 - * (소방서, 행안부)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 학교·건물정보(사진, 도면) 공유
 - ※ 건설 관계기관 연석회의 기 개최('20. 4.) 및 교육자료 제작·배포('20. 6.)

- (산불대비 협업)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산간지역 학교는 우선적 마감재 개선과 지자체·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험요소 사전 제거



4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

① 예방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

- (화재 안전교육)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주관하고 있는 특수학교, 실무관리자, 교원, 공사장 화재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
 - ※ (신규개설) 학교 내 공사장 화재안전 교육, (실무자) 교육 연 4회 → 6회, (교원) 대상 재난·시설·직업 표준 안전연수 연 2회 → 4회
- (화재 대피훈련)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이 100% 실시 될 수 있도록 점검·관리*하고 유사시 효과중심으로 훈련을 내실화
 - * 대학 예산담당자 회의(연 2회) 실적공개, 감사실과 합동 지도·점검('20.5.) (코로나 국면에 따른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'20. 하반기 훈련 실시)

② 찾아가는 화재안전 캠페인 개최

- 학교급별 취약학교를 매년 1개교씩 선정한 후, '국민 안전의 날'(4.16.)에 (가칭)'화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'을 개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

③ 학교 화재안전 유공자 포상 신설

-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공로가 있는 대학, 학교, 교직원, 학생 등에게 매년 정기 포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안전문화 정착 동기 부여

VI. 향후 추진일정

- 학교 및 대학 관계자 전달교육 실시('20.상)
- 교육청 및 대학별 세부시행계획 마련 시행('20.하)